

2012년 9월 러시아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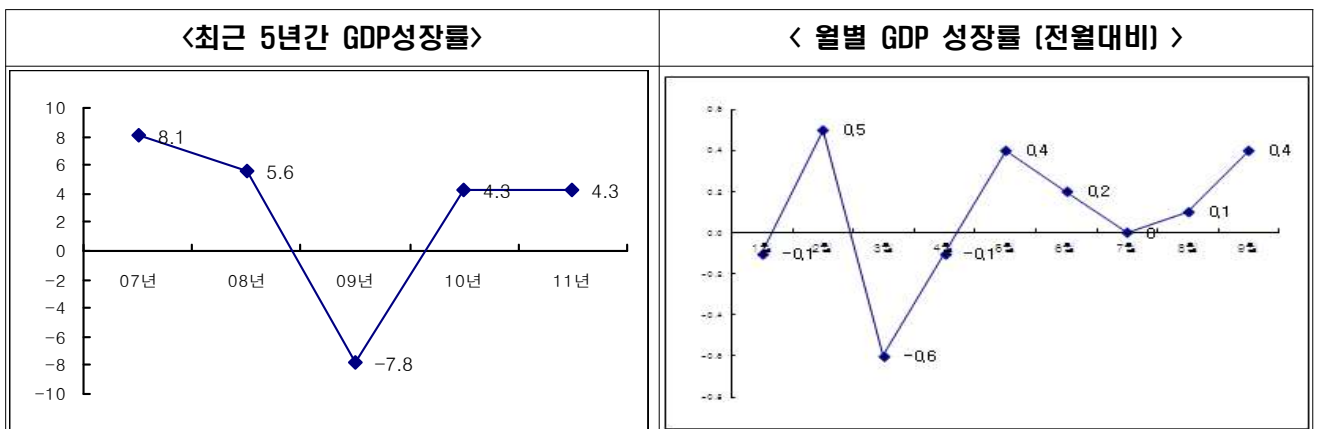
1. 경제성장

(전년동기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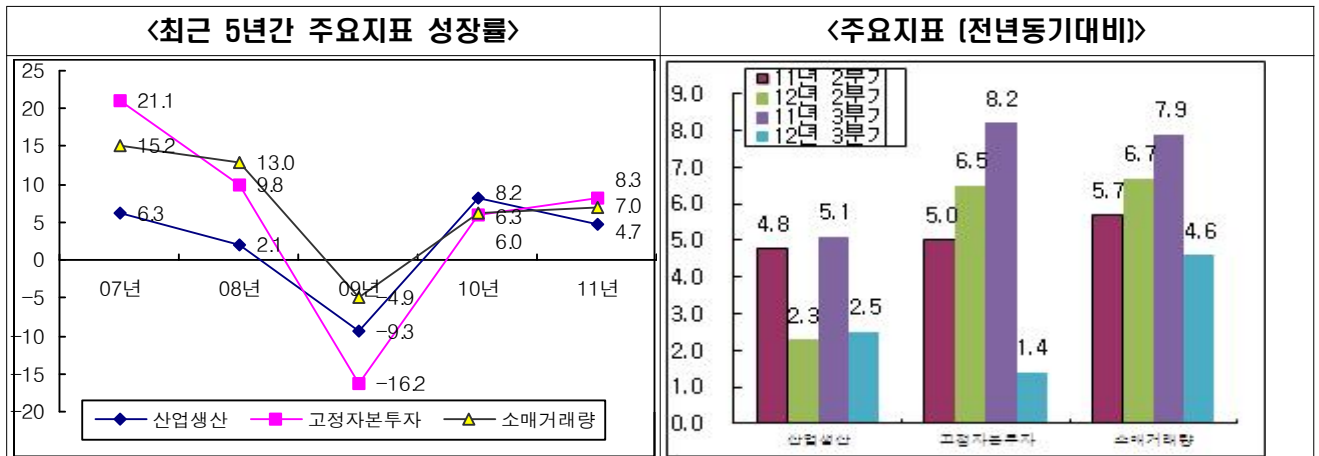
구 분	08년	09년	10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9월	1~9월	1/4	2/4	3/4	9월	1~9월
실질 GDP 성장률	5.6	-7.8	4.3	4.3	4.0	3.4	5.0	5.2	4.2	4.9	4.0	2.8	2.5	3.8
산업생산 성장률	2.1	-9.3	8.2	4.7	5.9	4.8	5.1	3.9	5.2	4.0	2.3	2.5	2.0	2.9
고정자본투자 증가율	9.8	-16.2	6.0	8.3	-0.8	5.0	8.2	9.5	5.0	16.6	8.5	1.4	-1.3	7.2
소매거래량 증가율	13.0	-4.9	6.3	7.2	5.0	5.7	7.9	9.3	6.3	7.6	7.0	4.6	4.4	6.3

* 자료출처: 경제개발부, 통계청

- (GDP 성장) 경제개발부 및 통계청에 따르면 9월 GDP는 전년동기 대비 2.5% 성장에 그쳐 3분기로는 2.8%를 기록하였으며, 9월까지 누적기준으로는 3.8% 성장한 것으로 잠정 집계
- 전월대비로는 0.4% 증가하여 8월 0.1%에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율이 높아졌으며 전분기 대비로는 0.5% 증가함(1·2분기 0.3%증가)
- 9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5% 증가(8월 2.1%)하였으며, 실질임금 6.6% (8월 6.0%), 소매거래량이 4.4% (8월 4.3%) 증가한반면 투자는 1.3%(8월 2.3%) 감소



- (생산측면) 9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0% 성장(8월 2.1%)에 그쳤으며, 3분기로는 2.5% 성장하여 2분기 2.3%보다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부문이 전년동월대비 3.3% (8월 4.1%), 광업 1.8% (8월 0.8%) 증가한 반면 전기·가스·수자원은 0.9% (8월 0.2%) 감소한 것으로 집계
 - 한편, 9월 농업생산은 7.7% 감소하여 3개월 연속(8월 -3.8%, 7월 -3.5%)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
- (소득·지출측면) 실질임금, 소득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6.6%, 3.8% 증가한데 힘입어 소매거래가 4.4% 성장하였으나 고정자본 투자는 1.3% 감소함.
 - 전월대비로는 실질임금(1.1%), 소매거래(0.5%)는 증가한 반면, 실질소득(0.7%), 고정자본투자(0.3%)는 감소



- (평가) 경제개발부는 9월 실질 GDP가 전월대비 0.4% 증가한 것은 산업생산, 소매거래 등이 전월대비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건설(-2.7%), 고정자본투자(-0.3%) 등은 부진한 것으로 평가
- 최근 4개월간 실질 GDP 성장률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가뭄, 물가상승, 투자 및 여신증가율 둔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나, 지난해 하반기 풍년과 투자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

* 실질 GDP증가율(전년동월대비): (5월) 4.3 → (6월) 3.8 → (7월) 3.0 → (8월) 2.8 → (9월) 2.5%

- 한편, Klepach 경제개발부차관은 9월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진정효과보다는 실물부문 성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밝힘(10.21)

- VTB capital은 경기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9월 고정자본투자가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한 것은 2011년 1월이후 처음이며,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3.5% 성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망
- 세계은행은 10.8 발표한 러시아 경제보고서에서 금년도 실질 GDP성장률을 3월 발표한 3.8%에서 3.5%로 하향조정
 - 이는 대외경제불확실성에 따른 대외수요감소, 국내 물가상승, 내수 및 여신 증가율 둔화, 농업생산 감소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
 - EBRD*1 는 10.26 발표한 보고서에서 금년도 러 경제가 대내외 수요감소 및 자본유출 등에 따라 3.2% 성장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

*1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 실질 GDP 성장률 추이 및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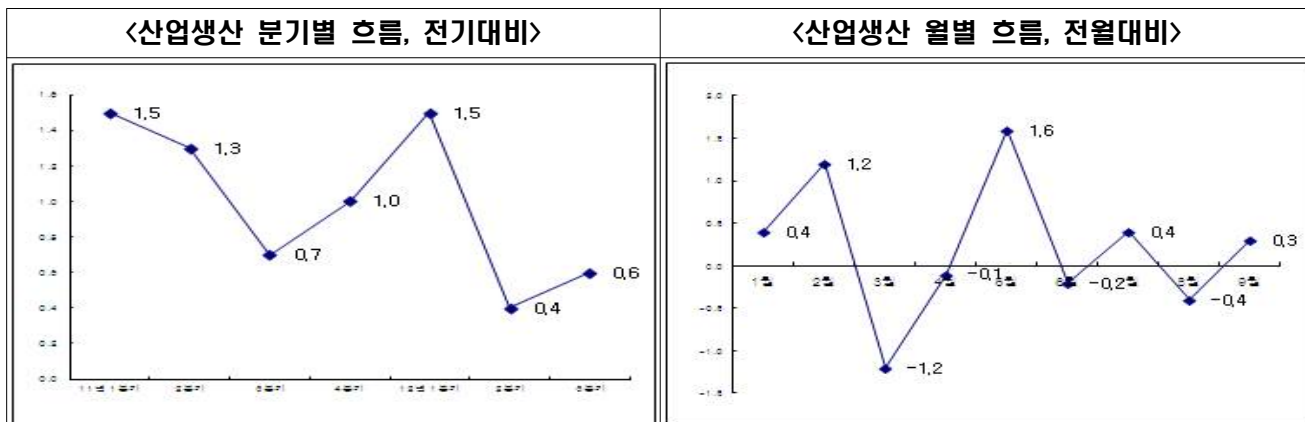
'07	'08	'09	'10	'11	'12년						'13년					
					러정부 (9.20)	VTB (10월)	EIU (10월)	IMF (10.9)	WB (10.8)	EBRD (10.26)	러정부 (9.20)	VTB (10월)	EIU (10월)	IMF (10.9)	WB (10.8)	EBRD (10.26)
8.5	5.2	-7.8	4.3	4.3	3.5	3.5	3.7	3.7	3.5	3.2	3.7	2.0	3.7	3.8	3.6	3.3

* EIU: Economist Intelligence Uint(英)

□ (산업생산) 9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하여 8월 2.1%보다 둔화되었으며 3분기로는 2.5%, 9월까지 누계로는 2.9% 성장

○ 제조업(3.3%)부문과 광업(1.8%)부문이 9월 산업생산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전기·가스·수자원부문은 0.9% 감소

- 제조업내에서는 고무플라스틱, 비금속, 금속업 등이 상대적으로 높이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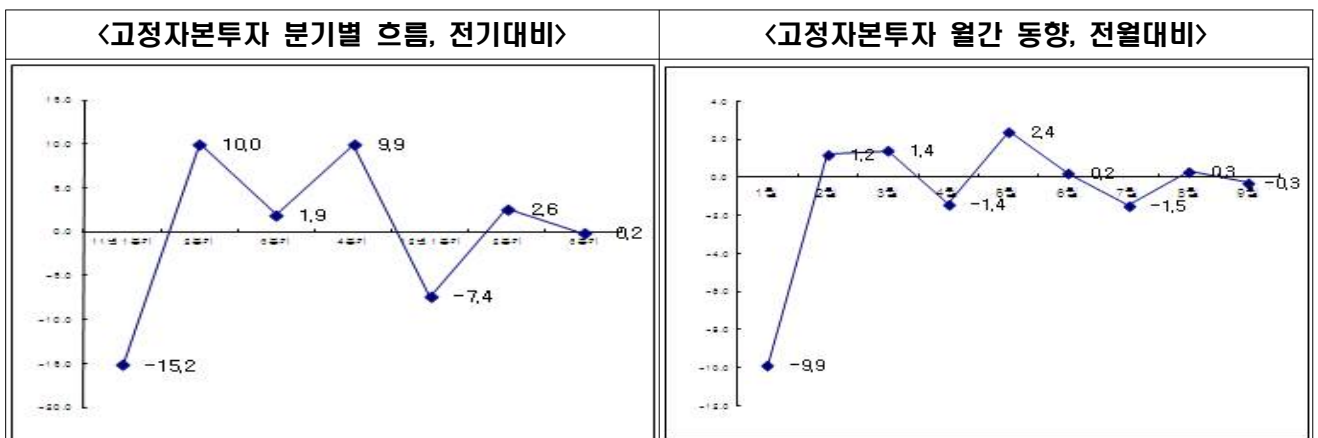


※ 전기(전월) 대비 성장률은 계절요인 제외치임.

- (제조업) 9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하였으며 3분기 전체로는 4.5%, 9월까지 누적으로는 4.5% 증가
 - 부문별 9월 생산증가율은 고무·플라스틱(9.7%), 비금속광물(9.5%), 기타제조업(8.4%), 금속(4.5%), 음식료품(3.6%), 목재가공(2.7%), 석유제품(2.6%), 전기·전자·광학(0.3%), 섬유(0.3%), 운송장비(0.0%)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
 - 피혁·제화(-11.5%), 기계장비(-10.5%), 펄프·제지(-2.3%), 화학제품(-2.3%)업종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 (광업) 광업은 전년동월 대비 1.8% 증가하여, 9월까지 누계로는 1.0% 증가
- (전기·가스·수자원 생산) 전기·가스·수자원 생산은 전년동월 대비 0.9% 감소하였으며, 9월까지 누계로는 1.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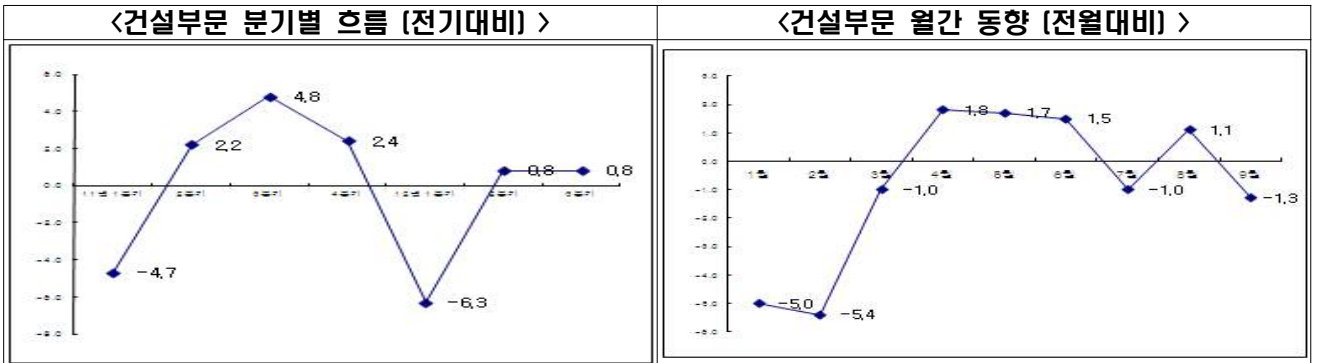
	2011년				2012년			
	1/4	2/4	3/4	1~3/4	1/4	2/4	3/4	1~3/4
○ 산업생산	5.9	4.8	5.1	5.2	4.0	2.3	2.5	2.9
- 제조업	10.6	5.8	5.7	7.2	4.4	4.7	4.5	4.5
- 광업	3.3	1.7	2.2	2.4	1.9	0.4	1.2	1.0
- 전기·가스·수자원	-1.0	1.9	1.4	0.6	2.6	0.8	0.0	1.3

- (고정자본투자) 통계청에 따르면 9월 고정자본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3%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1년 1월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동시에 4개월 연속 증가율이 감소
 - 3분기 전체로는 1.4%로 1~2분기에(1분기 16.6%, 2분기 8.5%) 비해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였으며 9월까지 누적으로는 7.2% 성장
 - 9월 투자 감소는 전년동월 높은 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이외에 건설부문이 전월 대비 1.3% 감소한 것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전기(전월) 대비 성장률은 계절요인 제외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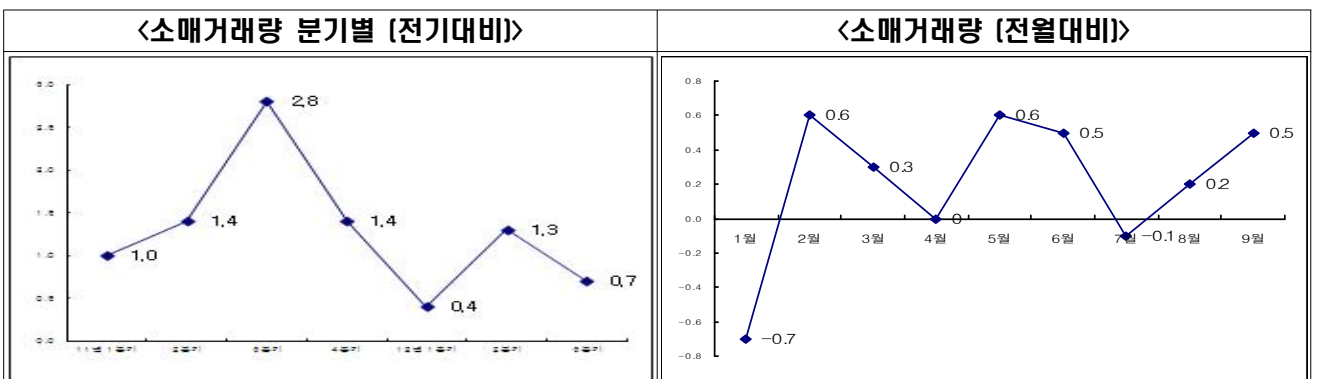
- (건설) 9월 건설은 전년동월대비 5.6% 감소하여 최근 31개월내 최저를 기록
 - 3분기 전체로는 2.7% 성장을 기록하여 9월까지 누적으로는 1.9% 성장에 그침
 - 주거용 아파트 건설물량은 5.1백만㎡로 전년동월대비 7.2% 감소,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는 34.6백만㎡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
 - 한편, 8월 주택 모기지 대출은 전년동월대비 48.7%를 기록하여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4월 65.6% 5월 49.4% 6월 31.3%, 7월 48.6%)



※ 전기(전월) 대비 성장률은 계절요인 제외치임.

- (농업생산) 9월 전년동월대비 농업생산 증가율은 5월이후 감소세를 나타내 9월 7.7% (8월 -3.8%, 7월 -3.5%) 감소하였으며, 9월까지 누적으로도 2.3% 감소
 - 이러한 농업생산감소는 금년 들어 2월 강추위와 늦은 봄, 가뭄, 이상고온 등 불리한 기후적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 10.1일 기준 헥타르당 평균 곡물수확량은 전년대비 23.3% 감소하였으며, 감자 생산도 8.8% 감소한 것으로 집계

- (소매거래) 9월 소매거래는 전년동월대비 4.4% 증가하였으며 3분기전체로는 4.6% 성장, 이는 실질가처분소득 및 소매여신증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9월까지 누적기준으로는 6.3%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0.7%p 낮았으며, 부문별로는 비식료품부문이 전월대비 0.8% 성장하여 소매거래 증가를 견인



※ 전기(전월) 대비 성장률은 계절요인 제외치임.

참고

주요 지표 (전년동기 대비)

	2011							2012				
	1/4	2/4	3/4	4/4	Year	9월	1~9월	1/4	2/4	3/4	9월	1~9월
□ 산업생산	5.9	4.8	5.1	3.3	4.7	3.9	5.2	4.0	2.3	2.5	2.0	2.9
○ 광업	3.3	1.7	2.2	1.3	1.9	1.4	2.4	1.9	0.4	1.2	1.8	1.0
○ 제조업	10.6	5.8	5.7	4.6	6.5	4.4	7.2	4.4	4.7	4.5	3.3	4.5
음식료품	1.7	0.5	-0.7	2.5	1.0	0.0	0.5	6.2	6.0	4.1	3.6	5.6
섬유	7.7	2.8	3.1	-2.9	2.6	3.2	4.6	-6.8	-4.1	-0.7	0.3	-3.4
피혁·제화	12.8	7.8	9.3	4.0	8.6	12.1	10.0	-10.2	-14.2	-12.8	-11.5	-12.4
목재가공	6.9	6.2	3.8	-1.0	4.0	1.5	5.7	0.7	3.3	4.1	2.7	3.0
펄프·종이	-0.5	0.5	0.4	7.0	1.8	-0.5	0.1	7.3	3.9	0.5	-2.3	4.3
석유제품	4.6	4.8	3.5	0.4	2.9	-1.2	3.8	2.3	2.2	2.0	2.6	2.1
화학	8.0	5.8	5.9	1.0	5.2	1.6	6.6	-0.6	2.0	1.8	-2.3	1.3
고무·플라스틱	20.6	15.4	6.9	7.2	13.1	7.0	15.1	2.8	4.4	12.8	9.7	6.4
비금속	12.7	9.3	8.6	6.5	9.3	6.4	10.2	12.7	9.9	4.8	9.5	7.3
금속	9.1	-3.5	2.4	2.8	2.9	4.6	2.9	4.8	7.2	5.0	4.5	5.7
기계장비	11.6	13.2	12.5	3.8	9.5	2.0	12.0	19.8	-11.9	-7.8	-10.5	0.4
전기·전자·광학	6.3	7.8	4.3	4.1	5.1	7.1	5.8	10.6	1.2	3.5	0.3	5.2
운송장비	59.6	15.1	19.2	9.6	24.6	21.9	29.6	22.7	29.5	9.4	0.0	17.2
기타	5.0	8.2	7.0	-2.8	4.5	4.2	6.8	2.0	-4.5	1.9	8.4	-0.2
○ 전기·가스·수자원	-1.0	1.9	1.4	-1.5	0.1	0.2	0.6	2.6	0.8	0.0	-0.9	1.3
□ 농업	1.7	1.6	29.7	34.0	23.0	39.3	18.3	4.0	4.3	-5.4	-7.7	-2.3
□ 고정자본투자	-0.8	5.0	8.2	13.6	8.3	9.5	5.0	16.6	8.5	1.4	-1.3	7.2
□ 실질소득	0.2	-1.3	1.4	2.8	0.8	2.7	0.1	2.4	4.0	4.3	3.8	3.6
□ 실질임금	1.6	2.7	3.8	8.5	4.2	5.3	2.6	10.3	11.3	6.9	6.6	9.4
□ 소매거래량	5.0	5.7	7.9	9.0	7.0	9.3	7.0	7.6	7.0	4.6	4.4	6.3

2. 고용 및 소득

(단위 : %, 천명)

구분 (전년동기 대비)	'08년	'09년	'10년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9월	1/4	2/4	3/4	9월
실업률(기말)	7.8	8.2	7.2	6.1	7.5	6.6	6.2	6.0	6.5	5.5	5.3	5.2
실업자수(기말)	5,895	6,173	5,400	4,643	5,617	4,959	4,767	4,615	4,870	4,203	4,021	3,985
실질가처분소득증가율	2.7	1.9	5.1	0.8	0.2	-1.3	1.4	2.7	2.4	4.0	4.3	3.8
평균명목임금(루블)	17,112	18,795	21,090	23,369	21,354	23,154	23,352	23,468	24,407	26,547	26,273	26,489
임금상승률(명목)	25.2	8.5	11.3	11.5	11.2	12.5	12.2	12.9	14.6	15.5	13.3	13.6
임금상승률(실질)	9.7	-2.8	5.2	2.8	1.6	2.7	3.8	5.3	10.3	11.3	6.9	6.6

* 실업률, 실업자수 : 분기는 분기평균

- (고용) 3분기 경제활동 인구는 76.3백만명으로 총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자수는 72.3백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5만명 증가
 - 한편 9월말 기준 실업자수는 전월대비 3만명 증가한 4백만명수준으로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5.2%를 기록
 - 직업소개소에 등록된 고용주의 구인요청은 최근 수개월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9월에도 25천여명이 줄어들어 1.57백만명을 기록
- (소득) 9월 실질소득은 전년동월대비 3.8% 증가에 그쳐(8월 6.8%), 3분기 전체로는 4.3%를 기록하였으며 9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3.6% 증가를 기록
- (임금) 9월 평균명목임금은 26.5천루블이며 3분기 평균으로는 26.3천루블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13.3% 증가하였으며, 3분기 실질임금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전분기보다(1분기 10.3%, 2분기 11.3%) 하락한 6.9% 증가에 그침
 - 8월까지의 업종별 임금상승은 공공부문과 에너지부문이 높았던 반면 금융·통신업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파이프라인 물류업은 전년동기 대비 16.1% 상승하여 전업종 평균임금의 2.4배에 달했으며 석유제품제조업도 20.5% 상승(2.2배)
 - 8월까지의 업종별 종사자수는 농업부문이 전년동기 대비 3.5%감소한 반면, 도소매업(4.4%), 금융업(5.5%)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

3. 물 가

(단위: %)

구 분 (전년말 대비)	'08년	'09년	'10년	'11년	2011년					2012년			
					연말	3월말	6월말	9월말	9월	3월말	6월말	9월말	9월
소비자물가	13.3	8.8	8.8	6.1	6.1	3.8	5.0	4.7	0.0	1.5	3.2	5.2	0.6
식료품	16.5	6.1	12.9	3.9	3.9	4.8	5.0	1.5	-0.6	2.3	4.7	5.5	0.1
비식료품	8.0	9.7	5.0	6.7	6.7	1.7	3.5	0.9	0.7	1.2	2.3	3.7	0.7
서비스	15.9	11.6	8.1	8.7	8.7	5.2	7.2	8.1	-0.1	0.6	2.3	6.7	1.0

* 자료출처: 통계청

- (소비자 물가) 9월 소비자 물가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어 전월에 비해 0.6% 상승함에 따라 연간기준으로 5.2% 상승하였으며 이는 전년동기 4.7%보다 0.5%p 높은 수준
 - 9월 물가상승은 국내 가뭄, 국제 곡물가 인상에 따른 영향과 함께 난방요금 등 비식료품 및 서비스 물가 인상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식료품) 9월 식료품은 0.1% 상승(8월 -0.5%)하였는데 과일과 채소값은 연속 2개월 하락한 반면 곡물가를 중심으로 기타 식료품 가격의 인상이 지속
 - (비식료품 등) 비식료품과 서비스 물가 상승폭은 전월보다 높은 0.7%(8월 0.4%), 1.0%(8월 0.6%)를 기록
 - 비식료품중에서는 석유 (9월 2.0%), 담배가격 인상이 지속되었으며, 서비스요금 인상은 공공요금인상에 따른 2차과급효과인 것으로 분석
- (전망) 주요 전망기관들은 곡물가인상,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과 이에 따른 2차효과 등을 고려할 때 연도말 물가인상이 7%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
 - EBRD는 10.26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도말 기준 인플레이션률이 6.8%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
 - 한편, 세계은행은 10.8 발표한 러 경제보고서에서 금년도 물가가 곡물생산감소, 공공요금상승, 임금인상 등의 영향으로 연도말 6.5~7.0%에 이를 것으로 전망

4. 대외거래

(억 달러)

	2010	2011					2012			
		연간	1/4	2/4	3/4	9월말	1/4	2/4	3/4	9월말
□ 경상수지	711	988	308	219	178	705	404	212	130	747
○ 상품수지	1,520	1,982	482	507	452	1,440	592	501	412	1,504
- 수출	4,006	5,220	1,132	1,337	1,304	3,773	1,318	1,319	1,276	3,913
· 석유	1,358	1,818	399	486	439	1,324	462	455	438	1,355
· 석유제품	705	957	204	236	263	703	256	263	241	760
· 천연가스	477	643	166	158	124	448	189	137	132	458
- 수입	2,486	3,238	651	830	852	2,333	726	819	864	2,408
□ 자본수지	1	-1	-	-	-0.6	-0.8	-48	-	1	48
□ 금융계정	-261	-761	-160	-88	-202	-451	-251	-20	-89	-359
□ 오차 및 누락	-83	-100	-47	-1	6.5	-42	-60	-43	-26	-129
□ 준비자산	368 증가	126 증가	101 증가	129 증가	18 감소	212 증가	46 증가	150 증가	15 증가	211 증가

* 자료출처: 중앙은행 국제수지 기준

- (경상수지) 중앙은행에 따르면 3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30억달러로 잠정 추정되어 전년동기대비 48억달러 감소하였으나 9월말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42억달러 증가한 747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
 - 3분기까지 우랄산 평균유가는 배럴당 111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109.5달러)보다 1.5달러 상승하였으며 고유가 지속이 큰폭의 경상수지 흑자의 주원인임
 - (상품수지) 3분기 수출은 전년동기보다 28억달러 감소한 1,276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상품수지흑자는 40억달러 감소한 412억달러를 기록
 - 3분기전체로는 수출이 3,913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0억달러 증가하였으나 상품수지흑자는 수입증가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64억달러 증가에 그침
- (자본수지) 3분기 자본수지는 은행(108억\$), 기업(151억\$)의 차입증가에도 불구하고 해외직접투자(178억\$), 은행부문상환(74억\$) 등으로 인해 -89억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중앙은행 준비자산(외환보유)은 15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
- (민간부문 자본유출) 6월들어 처음 순유입을 기록한후 7월부터 순유출로 전환되어 3분기중 136억달러가 유출되었으며 9월말까지 총 579억달러가 유출
 - (전망) 러 중앙은행은 12월말까지 600~650억달러가 유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13년 100억달러 유출후 '15년에는 순유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

□ (외환보유고) 2012.10.1일 현재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5,299억 달러로서, 연초 대비 313억달러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1년 9.1이후 최고치임

○ 금보유액은 38억달러 증가한 535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으며 이는 중앙은행의 금보유 확대의지를 나타냄

○ 한편, Sergei Ignatiev 러 중앙은행 총재는 10.18 한 컨퍼런스에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으나 외환구성에 있어 달러, 유로, 파운드, 엔, 스위스 프랑, 호주 달러 이외에 향후 중·동유럽 국가의 화폐도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

(억\$)

	외환보유고	외환보유고 구성					금
		외환보유				IMF지분	
		소계	외환	SDRs	IMF지분		
2012.1.1	4,986	4,540	4,413	87	40	447	
2012.2.1	5,054	4,566	4,436	88	41	488	
2012.3.1	5,140	4,638	4,508	88	41	502	
2012.4.1	5,135	4,657	4,526	88	42	478	
2012.5.1	5,243	4,764	4,631	88	45	479	
2012.6.1	5,104	4,651	4,521	86	44	453	
2012.7.1	5,143	4,680	4,549	86	45	463	
2012.8.1	5,105	4,619	4,489	86	44	486	
2012.9.1	5,146	4,649	4,516	87	46	497	
2012.10.1	5,299	4,764	4,630	88	46	535	

□ (대외채무) 중앙은행에 따르면 2012. 9월말 현재 대외채무는 총 5,977억 달러로 전년말 대비 523억 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

○ 분야별 대외채무는 일반정부 413억 달러(전년말 대비 65.8억 달러 증가), 통화당국 128.4억 달러(16.3억 달러 감소), 은행부문 1,852억 달러(223.3억 달러 증가), 기업부문 3,584억 달러(217.3억 달러 증가)임

(억\$)

	10. 12월	11. 3월	6월	9월	12월	12. 3월	6월	9월
총계	4,889.4	5,096.3	5,388.6	5,277.9	5,453.5	5,654.7	5,726.7	5,976.5
일반정부	345.3	353.7	351.2	333.4	346.8	363.4	411.3	412.6
연방정부	321.7	328.6	326.4	311.2	335.6	351.8	403.6	404.9
지방정부	23.6	25.1	24.8	22.1	11.2	11.5	7.8	7.7
통화당국	120.4	124.7	127.6	118.6	112.1	115.3	112.3	128.4
은행	1,442.3	1,491.1	1,590.1	1,573.0	1,628.3	1,692.8	1,754.1	1,851.6
기업	2,981.6	3,126.9	3,319.7	3,252.9	3,366.6	3,481.2	3,448.9	3,583.9

5. 외환 및 금융시장

(단위 : 가중평균금리, %)

구 분	'08 년	'09 년	'10 년	'11 년	2011년				2012년				
					1/4	2/4	3/4	4/4	1/4	2/4	3/4	8월	9월
은행간 신용금리	5.5	7.8	3.1	4.0	2.9	3.6	4.2	5.1	4.8	5.6	5.5	5.3	5.5
중앙은행채권 금리	5.9	8.6	4.3	3.6	3.5	3.6	3.6	3.9	-	-	-	-	-
예금금리 (요구불예금 제외)	5.8 (7.6)	8.6 (10.4)	6.0 (6.8)	4.4 (5.4)	4.4 (5.3)	4.1 (5.1)	4.0 (5.1)	5.2 (6.4)	5.5 (6.6)	5.4 (6.4)	-	5.2 (6.1)	-
만기 1년이하 대출금리	12.2	15.3	10.8	8.5	8.7	8.3	8.0	8.9	9.0	9.1	-	9.1	-

* 자료출처: 중앙은행

□ (금리) 9월 은행간 신용금리는 5.5%로 8월대비 0.2%p 상승하였으며 이는 9월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25bp)과 자금마련을 위한 은행간 경쟁심화 등에 기인

* 은행간 신용금리 : (1월)4.8→(2월)4.4→(3월)5.1→(4월) 5.3→(5, 6월) 5.8→(7월)5.6→(8월)5.3%

○ 한편, 중앙은행은 10.5(금) 개최된 월례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통화정책이 경제둔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 향후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심화될 경우 연도말 추가적인 기준금리인상이 전망되나, 경기둔화가 급속히 진행될 경우에는 금리인상이 곤란할 것으로 보임

* German Gref 스페르뱅크 회장은 현재 신용부문에 과열현상이 없으나 이론적가능성에 근거한 엄격한 신용관리로 인해 이자율 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힘 (10.24)

□ (유동성) 10.1일 기준 시중 통화량(M²)은 24.7조루블로 전월대비 0.3%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14.8% 증가에 그쳐 2009년 12월이후 최저를 기록

○ 하반기 인플레이션 리스크 증가에 따른 유동성 관리 강화가 전망되므로 향후 수개월내 유동성 사정이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전망

		12.1.1	2.1	3.1	4.1	5.1	6.1	7.1	8.1	9.1	10.1
M2(10억 루블)		24,483.1	23,617.6	23,791.1	23,975.3	24,162.3	24,365.9	24,679.2	24,561.3	24,573.5	24,657.5
증가율 (%)	전월대비	11.8	-3.5	0.7	0.8	0.8	0.8	1.3	-0.5	0.0	0.3
	연초대비	-	-3.5	-2.8	-2.1	-1.3	-0.5	0.8	0.3	0.4	0.7
	전년동월	22.3	22.3	21.8	21.2	20.7	20.9	19.1	17.9	16.7	14.8

□ (여수신 현황) 기업여신은 전월대비 0.6% 증가(8월 2.1%)에 그쳤으며, 전년동월 대비로도 16.9% 증가에 그쳐 8월 22.0%보다 증가폭이 둔화

○ 소매여신 또한 전월대비 2.5% (8월 3.6%), 전년동월대비로는 41.7%(8월 43.2%)에 그쳐 증가세가 둔화

○ 소매수신은 전월대비 0.2% (8월 1.6%), 전년동월대비 19.6% (8월 21.6%) 증가에 그쳤으며, 기업수신도 전월대비 1.7% (8월 1.8%), 전년동월대비 9.6% (8월 18.8%) 증가에 그침

○ (전망) 자금확보를 위한 은행간 경쟁심화, 중앙은행의 기준이자율 인상가능성 등으로 인해 당분간 여신증가율은 둔화 될 것으로 전망

- 중앙은행은 2013.1.1부터 비보증자들의 무담보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비율을 2%로 높일 계획이며, 30일 이내 연체채권과 1년 이상 연체채권에 대해서도 각각 6%, 100%로 높일 계획인 바, 향후 여신증가율 둔화에 영향을 줄 전망

10억 루블		2011년 9월	2012년								9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비 [%]	전년 동월 [%]	
여신	기업	16,683	17,549	17,395	17,721	18,143	18,557	18,806	18,986	19,383	19,499	0.6	16.9
	소매	5,065	5,582	5,698	5,895	6,119	6,365	6,573	6,759	6,999	7,176	2.5	41.7
수신	기업	13,034	13,156	12,851	12,968	13,014	13,660	13,564	13,790	14,044	14,283	1.7	9.6
	소매	10,920	11,638	11,793	11,984	12,260	12,509	12,833	12,831	13,032	13,058	0.2	19.6

(루블, %)

구분		'09년	'10년	'11년	2011년				2012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4	2/4	3/4	9월
명목환율 ¹⁾	루블/달러	31.68	30.36	29.35	29.26	27.99	29.03	31.22	30.24	30.98	32.00	31.52
	루블/유로	44.13	40.27	40.87	40.03	40.29	41.08	42.10	39.66	39.80	40.01	40.45
명목환율 절상률 ²⁾	달러대비	-21.7	4.3	3.4	5.0	4.6	-3.6	-7.0	3.2	-2.4	-3.2	1.4
	유로대비	-17.5	9.6	-1.5	4.3	-0.7	-1.9	-2.4	6.1	-0.3	-0.5	-2.2
실질환율 절상률 ²⁾	달러대비	-12.2	9.7	8.8	8.0	4.3	-3.8	-6.1	3.8	-1.8	-1.3	1.5
	유로대비	-8.3	15.5	4.1	7.7	-0.3	-2.0	-2.2	6.9	0.2	1.3	-1.9
실질실효환율	절상률	-5.6	9.6	4.7	7.3	1.6	-1.9	-2.2	4.8	-0.5	0.0	-0.4

1) : 기간 평균환율 2) : 전기 대비(연간은 전년도 대비, 분기는 전분기 대비) 자료출처 : 중앙은행

□ (환율) 9월 루블화 환율은 우랄산 유가가 배럴당 113.1달러(8월)에서 111.6달러로 소폭하락한 것 등에 영향을 받아 실질실효환율이 0.4% 하락

○ 기간평균환율기준 루블화 명목환율은 전월대비 달러화는 1.4% 증가한 반면, 유로화는 2.2% 하락하였으며 실질실효환율은 전월대비 0.4% 하락

○ 중앙은행은 환율시장 안정에 따라 9월에는 시장개입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달러화의 경우 4.5억달러 매도에 그침

* 달러화: (매입)1~5월 121억, (매도) 1~5월 9억, 6월 22억, 7월 10억, 8월 3.9억, 9월 4.5억달러
유로화: (매입)1~5월 8.6억, (매도) 1~5월 0.6억, 6월 2억, 7월 0.7억, 8월 0.5억, 9월 0.4억유로

□ (전망) 9월 실질실효환율(REER)이 0.4% 하락한 것은 루블화 가치가 달러화 대비는 증가하였으나 유로화대비로는 큰 폭으로 하락한 것에 기인

○ 중앙은행에 따르면(10.29) 4분기중 상황이 도래하는 대외채무가 총 437억달러에 이르며 이중 절반이 12월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당량의 채무가 통상 상황이 연장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채무상황이 집중(241억\$)된 것은 연도말 루블화 약세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억달러	12년 3/4	4/4				13년 1/4	2/4
		소계	10월	11월	12월		
□ 총계	495	437	109	87	241	352	311
- 공공부문	18	8	4	2	3	17	7
- 민간부문	477	429	105	85	238	335	304

○ VTB capital은 경상수지 흑자폭 감소 전망, 대외채무 상환일정 등 감안시 연도말에는 달러화대비 34루블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유지

- 반면, 러 경제개발부와 EIU는 31루블 내외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참고

러 중앙은행 외환시장 개입 현황

	USD (min USD)				euro (Min EUR)			
	매입		매도		매입		매도	
	실행	목표	실행	목표	실행	목표	실행	목표
2011년 1월	645.67	645.67	0.00	0.00	124.20	124.20	0.00	0.00
2011년 2월	3,481.82	2,146.00	0.00	0.00	796.42	405.73	0.00	0.00
2011년 3월	4,491.48	3,434.62	0.00	0.00	636.36	439.38	0.00	0.00
2011년 4월	3,284.71	3,002.67	0.00	0.00	260.86	239.90	0.00	0.00
2011년 5월	3,915.98	3,267.58	0.00	0.00	433.95	334.94	0.00	0.00
2011년 6월	3,230.70	2,799.78	0.00	0.00	541.49	497.21	0.00	0.00
2011년 7월	3,706.60	2,855.52	0.00	0.00	1,003.80	899.52	0.00	0.00
2011년 8월	961.64	767.39	700.88	297.01	167.32	163.31	7.55	7.55
2011년 9월	0.00	0.00	6,765.68	2,017.40	0.00	0.00	590.91	275.34
2011년 10월	0.00	0.00	4,372.64	2,550.50	0.00	0.00	500.48	331.89
2011년 11월	0.00	0.00	1,386.70	1,386.70	0.00	0.00	130.64	130.64
2011년 12월	0.00	0.00	1,773.14	1,773.14	0.00	0.00	191.70	191.70
2012년 1월	427.72	427.72	635.26	635.26	24.27	24.27	42.50	42.50
2012년 2월	2,595.61	2,445.61	0.00	0.00	147.19	147.19	0.00	0.00
2012년 3월	3,927.76	3,423.97	0.00	0.00	262.47	217.77	0.00	0.00
2012년 4월	3,592.57	3,489.48	0.00	0.00	304.84	283.21	0.00	0.00
2012년 5월	1515.07	1,469.36	276.35	276.35	116.62	114.12	17.17	17.17
2012년 6월	0	0	2,207.29	1,894.06	0	0	173.11	161.56
2012년 7월	0	0	1,044.84	1,044.84	0	0	69.41	69.41
2012년 8월	0	0	385.47	385.47	0	0	47.51	47.51
2012년 9월	0	0	453.81	453.81	0	0	43.99	43.99

* 출처 : 중앙은행

6. 재정

(10억 루블, %)

	2010년	2011년	2012년 계획		2012년 실적		
			당초	수정*	전반기	9월	1~9월
○ 세입 (연간계획대비)	8,305	11,366	11,780	12,677	6,200	1,032	9,384 (74.0%)
○ 세출 (연간계획대비)	10,117	10,935	12,656	12,745	5,952	929	8,749 (62.9%)
○ 수지 (비에너지)	-1,812	431 (-5,211)	-877 (-6,451)	-68 (-12,745)	247 (-2,979)	103 (-411)	636 (-4,104)
- GDP 대비 % (비에너지)	-4.0	0.8 (-9.6)	-1.5 (-11.0)	-0.1 (-21.0)	0.9 (-10.6)	1.8 (-7.1)	1.4 (-9.3)

* 2012. 6.6일 푸틴 대통령 두마를 통과한 수정예산에 서명

- (수지) 재무부에 따르면 9월 세입·세출 잠정추계결과 연방재정은 1,030억루블 흑자를 기록해 재정수지는 GDP 대비 1.8%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
 - 9월 세입은 전월대비 6.7% 감소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4.2% 증가, 세출은 전월대비 4.2% 증가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로도 42.8% 증가
 - 9월중 세출이 42.8% 증가한 것은 8월 재정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을 상쇄하기 위한 지출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9월까지 누적기준으로 세입은 9조 3,840억루블로 계획대비 74.0%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지출은 8조 7,490억루블로 계획대비 62.9% 실적을 보인 것으로 추계
 - 한편, 9월까지의 세입·세출 추계결과 6,360억루블의 흑자를 기록해 재정수지는 GDP대비 1.4% 흑자를 기록
- (전망) 예산법률에 따르면 4분기중 지출규모는 3조 9,960억루블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3.7% 증가한 수준으로 상반기 증가율 32%를 크게 하회
 - 이에 따라 2012년 재정수지는 2011년도 GDP대비 0.8% 흑자에 이어 0.1%내외의 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

* 푸틴 대통령은 금년도 재정수지가 흑자가 될 것이라고 발다이클럽 토론 패널들과의 만남에서 밝힘 (10.25)

(자료출처 : 주러대한민국대사관)